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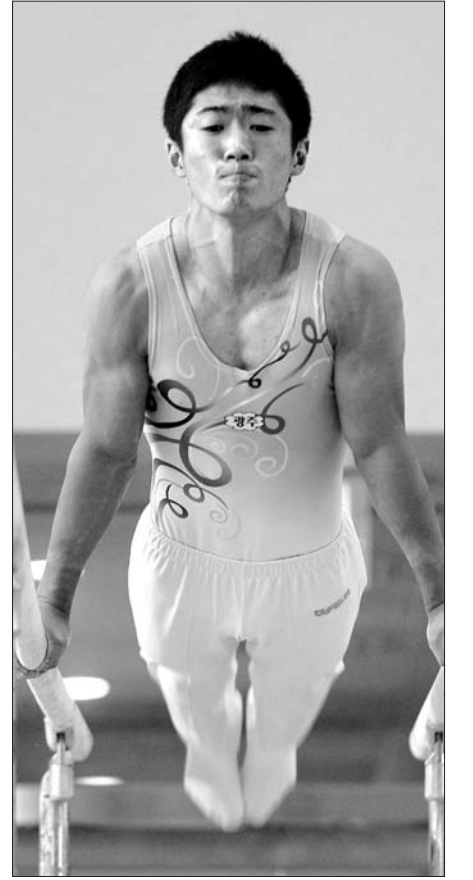
〈박태환〉



〈이용대〉



〈김우진〉



〈양학선〉

땀방울의 기적... 이젠 '런던골드'다

‘이제는 런던이다’
2011년 새해를 맞는 예비 태극전사들의 시선은 2012년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열릴 제30회 런던 올림픽에 맞춰져 있다. 당장 새해부터 올림픽 예선전과 올림픽의 메달 색깔을 점쳐볼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가 잇달아 열리기 때문이다.

1년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 제패의 꿈을 이루려는 각국 메달기대주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1·단국대)은 3일부터 본격적인 새해 훈련을 시작한다.

박태환은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재계약했고 일단 국내에서 전담 코치로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맡는다. 박태환은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재계약했고 일단 국내에서 전담 코치로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맡는다. 박태환은 마이클 볼(호주) 코치와 재계약했고 일단 국내에서 전담 코치로 함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맡는다.

2010 광주 아시안게임 때 2회 연속 3관왕에 올랐던 박태환은 런던 올림픽에서도

박태환·양학선·김우진·손연재 런던 빛낼 태극전사 예선전·세계선수권 본격 돌입... 이달부터 금 레이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아시아인기록(3분41초86)을 세우고 금메달을 땀던 남자 400m 자유형 종목 우승이 목표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3분41초53으로 자신의 최고기록을 작성하며 400m에서 우승했던 박태환은 오는 7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선 명예 회복을 노린다.

2009년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예선에서 3분46초04의 부진한 기록 탓에 조 3위, 전체 12위에 그쳐 8명이 겨루는 결선에도 오르지 못했던 악몽이 남아있어서다.

박태환은 일단 7월 상하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좋은 기록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면 여세를 몰아 런던 올림픽에서 3분40초대까지 진입하며 세계인기록까지 노려볼 심산이

다. 400m 세계기록은 로마 세계선수권대회 때 전신 수영복을 입은 파울 비터만(독일)이 우승하며 작성한 3분40초07이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종합 2위 수성에 앞장섰던 다른 태극전사들도 런던 올림픽 금메달 사냥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한다.

남자 양궁의 ‘고교생 신궁’ 김우진(18·충북체고)과 남자 체조의 금메달 기대주 양학선(18·광주체고), ‘체조 요정’ 손연재(16·세종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발차기를 보여줬던 이대훈(18·한성고)이 런던을 빛낼 후보들이다.

고교 졸업과 함께 2011년 실업팀인 청주 시청에 입단하는 김우진은 오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도전한다.

김우진은 치열한 국내 대표 선발전 관문을 통과하는 게 1차 목표지만 태극마크만 단다면 광저우 아시안게임 2관왕 자신감을 바탕으로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킨다는 목표다. 한국 남자 양궁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던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부터 26년 동안 올림픽에서 ‘노골드’ 행진을 이어왔다.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 체조 남자 도마 금메달과 여자 리듬체조 개인종합 동메달을 각각 수확했던 양학선과 손연재도 런던 올림픽에 가는 기대가 크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뽀름 은메달리스트 여흥철 경희대 교수의 후계자로 꼽히는 양학선은 두 바퀴 반을 돌아 매트에 착지하는 ‘여’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오는 8월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선보인 뒤 런던 올림픽 우승을 겨냥한다.

손연재도 1월 초 리듬체조 강국 러시아 노보고르스크 훈련센터에 입소해 이 종목 대모인 이리나 비너르 코치 지도로 3개월 새 안무를 배워 5월 국제체조연맹(FIG) 월드컵과 9월 몽펠리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기량을 테스트한다.

이와 함께 태권 전사 이대훈은 한국이 런던 올림픽 때 남자 63kg급에 선수를 출전시키지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단 5월 경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뒤 7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올림픽 세계 예선전에서 체급 출전권을 따낸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베이징올림픽 때 전체 8체급 중 남녀 네 체급에 나가 모두 금메달을 따냈다.

이밖에 베이징올림픽 때 태극마크를 반납한 이효정과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을 함락했던 이용대(이상 삼성전기는)는 2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또 남자 탁구의 ‘신세대 3총사’ 정영식(대우증권), 서현덕(삼성생명), 김민석(인삼공사)도 2004년 아테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승민(삼성생명)의 뒤를 이어 런던 올림픽에서 남자단식 금메달 명맥을 잇겠다고 버리고 있다.



신묘년 새해 힘찬 질주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FC의 조우진·박희성·이재찬·김성민(왼쪽부터) 등 토끼띠 4총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FC 토끼띠 4총사 김성민·조우진·박희성·이재찬

K리그 광주돌풍... 꿈★ 이룬다

“2011년 푸른 그라운드를 누비며 광주 FC의 돌풍을 이끌겠습니다.”
2011시즌 프로축구 K리그의 16번째 구단 광주 FC가 빛과 그림자의 명예를 걸고 첫 출격을 한다. 신묘년(辛卯年)인 2011년, 광주 FC의 1987년 동갑내기 ‘토끼띠 4총사’ 김성민·조우진·박희성·이재찬이 화려한 그라운드를 그리며 날랜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4명의 토끼띠 선수에게 광주는 친숙한 무대이자 기회의 땅이다.

서울 중대부고를 나온 호남대 출신의 미드필더 박희성은 2010시즌 공격수 김성민과 호흡을 맞추며 모교의 U리그 호남권 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청소년축구대표를 지낸 미드필더 조우진은 포철공고를 졸업한 뒤 K리그 히로시마를 거쳐 목포시청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승의고를 졸업한 이재찬은 조선대에서

프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운 광주 출신이다.

특히 김성민에게 광주는 운명과도 같은 곳이다.

축구 명문 성남 풍성고를 졸업하고 중앙대에 진학했던 김성민은 코칭스태프와의 마찰로 슬럼프를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축구의 꿈을 포기하려고까지 했던 김성민은 호남대 서현욱 감독을 만나 다시 스파이크 끈을 조여줬다. 그리고 지난시즌 대학리그 19경기에 출전해 22골을 기록하는 등 호남권 득점왕에 오르며 팀의 U-리그 호남권 우승을 이끌었다. 김성민은 광주시축구협회 2010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됐다.

축구 고향인 광주에서 프로데뷔를 하게 된 김성민은 “축구를 포기할 뻔 했던 상황에서 광주에 와서 제 2의 축구인생을 살게 됐다”며 “광주 FC가 창단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부상없이 열심히

히 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고 토끼띠 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익숙한 그라운드에서 프로데뷔를 하게 된 광주출신의 이재찬의 소감도 남다르다.

동료들의 광주 적응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찬은 “처음 행진 지역 연고팀에서 뛸 수 있게 돼 영광이다. 스피드에 자신있는 만큼 부상없이 올 시즌 그라운드를 열심히 뛰고 싶다”고 고향에서 맞는 새해의 각오를 언급했다.

2011시즌 출발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했던 광주 FC 선수들은 3일 다시 그라운드에 소집된다.

광주월드컵보조경기장과 무등경기장 축구장에서 몸을 풀 선수단은 오는 9일부터 3주동안 강진에서 2011시즌을 위한 탐금질을 하게 된다.

삼성 선동열 감독 전격 사퇴

새 사령탑에 류중일 선임

‘국보급 투수’에서 ‘명장’의 반열에 올랐던 프로야구 선동열(47) 삼성 감독이 사령탑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삼성에는 30일 전 감독이 물러나고 류중일(47) 전 1군 작전코치를 제13대 감독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삼성 구단은 선 감독이 은퇴했다고 밝혔지만 퇴진이 이날 아침 전격적으로 이뤄져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삼성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시즌 한국시리즈 우승을 향해 스프링캠프 구상을 가다듬던 선 감독은 이날 김인 사장의 호출을 받고 서울 구단 사무실로 갔다가 ‘그만두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



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류중일 선임 감독은 “오전 10시에 김인 사장님으로부터 감독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랐다. 전 날까지는 물론 어떤 언질을 받거나 눈치를 채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

은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류중일 선임 감독은 “오전 10시에 김인 사장님으로부터 감독이 됐다는 전화를 받고 너무 깜짝 놀랐다. 전 날까지는 물론 어떤 언질을 받거나 눈치를 채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

이와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려 최선을 다하겠다. 팬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구단, 팀워크가 살아 숨 쉬는 구단, 근심 있는 구단으로 변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경북고-한양대를 나온 류 선임 감독은 삼성에서 13년간 선수로 뛴 프랜차이즈 스타로 역시 삼성에서 11년간 코치로 활약하며 지도자로 역량을 쌓았다.

지휘봉을 내려놓은 선 감독은 구단 운영 위원이라는 새로운 보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2004년 수석코치로 삼성 유니폼을 입은 선 감독은 2005년 김용우 전 사장에 이어 삼성 12대 사령탑에 올라 그해와 이듬해 한국시리즈를 제패,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5년 계약 만료를 앞둔 지난해 중반에는 다시 5년 재계약에 성공, 구단의 꾸준한 신뢰를 받는 듯했으나 올 시즌 후 삼성그룹 인사에 따라 김용우 사장, 김재하 단장이 나란히 퇴진하면서 동반 퇴진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K리그 광주FC 가세... 소년체전 초·중등 분리 개최

올해 달라지는 스포츠

2011년 스포츠계에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다.

무엇보다 프로축구 K-리그는 광주FC의 가세로 역대 최다인 16개 팀이 참가해 우승 팀을 가린다.

세트제를 도입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양궁에서는 경기 방식을 좀 더 손질했고, 한국프로골프 투어성적도 월드컵킹 포인터에 반영되는 등 종목별로 더욱더 재미있는 경기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신생 광주FC 가세-K-리그 16개 팀으로 운영=프로축구 K-리그는 역대 최다인 16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다. 광주FC가 새로 창단된다. 그동안 광주를 지켜왔던 상무축구단이 연고지를 경북 상주로 옮겨 K-리그에 잔류하면서 올해보다 팀이 하나 더 늘었다. 다만 2013년부터 승강제가 이뤄지면 상무축구단은 연고지를 유지하며 2부리그에서 뛰게 된다.

◇한국프로골프투어 성적도 월드컵킹 포인트 반영=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뛰는 선수들도 새해부터는 월드컵프랭킹위

원회가 부여하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국내 투어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상위 투어에 진출할 길이 열린 셈이다.

세계랭킹은 월드컵킹위원회가 오거스타 내셔널, 미국골프협회(USGA), 영국왕립골프협회(R&A), 미국프로골프협회(PGA), 국제투어연맹(IFPT)으로 구성된 6대 투어(PGA투어, 유럽프로골프투어, 일본투어, 아시아투어, 호주투어, 선사인투어)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개최된 대회 결과를 반영해 매주 필요일 발표한다.

◇양궁 세트제·슛오프 방식 부분 손질=홈이 높여지고 올해 세트제를 도입한 양궁(리커브)에서는 경기 방식을 약간 손질했다. 개인전 하위 토너먼트까지는 6발씩 3세트제로 치렀지만, 새해부터는 상·하위 토너먼트 모두 3발씩 5세트제로 통일했다.

단체전에서 동점일 때 치르는 슛오프의 경우 1인당 한 발씩, 총 3발을 쏘고 나서도 점수가 같으면 양 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화살 중 정중앙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된다.

개인전은 이미 올해부터 이 방식을 적용했지만, 단체전에서는 동점이면 승부가 날 때까지 슛오프를 이어갔다.

◇소년체전, 초등부·중학부 대회 분리 개최=소년체전에서 초등부는 17개 종목은 유지하되 한자리에 모여 종합대회를 치르는 방식에서 벗어난다. 중·고등부, 시·도 또는 권역별 대회로 열린다.

33개 종목을 치르는 중학부는 현재와 같이 전년도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종합대회를 치른다. 다만, 중학부 경기 때에도 개최식이 나 발도 행사 등은 전면 폐지한다.

대한 체육회는 2012년까지 초등부 대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서 효과가 좋으면 이후 중학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당구·복싱 여자경기,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시범 종목이었던 당구는 2011년 전국체전에서는 정식 종목으로 위상이 높아진다. 태권은 시범 종목이 됐다.

아시아게임과 올림픽처럼 전국체전에서 도 복싱 여자부 경기가 치러진다. 2011년부터 51kg급과 60kg급, 75kg급 등 여자 3체급이 전국체전 무대에 오른다.

근대5종 여고부와 여자 일반부 경기는 전국체전 시범 종목으로 열린다. 스키 점프와 프리스타일(모굴)은 동계체전 전시 종목으로 치러진다.